



수의학교육의 발자취 - 1



양 일 석
(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고문/서울대 명예교수
isyang@snu.ac.kr

필자가 쓴 1998년 대한수의사회 발행 ‘한국수의50년사’의 ‘수의학교육’편을 읽은 한 지인이 “그게 서울대학교 수의학교육 50년사이지 어디 한국 수의학교육 50년사이오?”하는 농담반 진담반의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의 무지와 적극적 발굴 노력을 게을리 한 탓도 있었지만 대학자체도 자신의 역사에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하여 요사이 흔히 볼 수 있는 ‘00대학교 xx년사’라는 책이 발행되지 않은 터이라, 각 대학의 수의학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학교육 50년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학(경북, 경상, 서울시립, 제주, 전남, 전북)의 기록 즉 해방 후부터 60년대까지의 수의학교육과 더불어 이들 대학의 설립 배경을 조명해 보고자한다.

1. 일제강점기의 수의학교육

조선시대의 수의정책은 말(馬)위주이었다. 수의와 제철공의 정책 및 마필생산을 다루기 위하여 사복시(司僕司, 왕의 의전)를 포함하는 병조의 군무국에 마정과를 두었고, 일반가축과 군용마가 아닌 일반승용마에 대한 수의와 제철공에 대한 정책을 다루기 위하여 농상공부 농무국 농사과를 두었다. 이러한 양립화는 을사보호조약(1905)이 체결되고 한일합방(1910.8.29)이 되면서 농상공부에서의 수의제도는 없어지고 일본 육군과 조선에 주둔하는 군사령부의 수의제도만 남게 되어, 도축검사와 수의예방과 같은 일반 수의행정은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수원농림학교의 수의속성과를 폐지하게 한 이유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정규수의사는 군(軍)에 근무하였고, 지역에서의 수의사 공백은 우의강습회, 수의강습회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강습회가 대신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살펴보면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학

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① 1기라 볼 수 있는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1911~1922) :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일본 천황과 일본제국에 복종하도록 노동자와 하급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이므로 강제로 일본어를 습득하게 하고 실용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초보적인 실업교육에 치중하였다. 대학과정은 없고 전문학교의 태동이 있었다. 예컨대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의 여러 전문학교가 이에 속한다. ② 2기인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1922~1938) :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의 교육제도 시기이다. 민립대학(民立大學)의 설립을 막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 유일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기존의 전문학교와 고등교육을 이원화하였다. 그리하여 이 당시는 보통학교(현재의 초등학교 과정, 6년)를 거쳐, 흔히 ‘고보’라 불리었던 고등보통학교(중학교, 5년제, 여자 학교는 수업연한이 1년 적었음)를 졸업한 후 3~4년 과정의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예과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다. 한편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실업학교(예, 농림학교)에 진학하여 3~5년 동안 공부하였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은 심하여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1943년 4월 조선교육령에 따라 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 고등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와 같은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를 두었다. ③ 3기인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1938.4.1~ 1943.3.31) : 중일전쟁(1937년7월7일 시작)으로 일제는 한국을 병합 기지화하려는 목적으로 징병과 노동력 보충을 위해 학생을 징집화하기 시작하는 반면 종전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의 명칭이 달랐으나 이 시기에 내선일체를 내세워 명칭을 통일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1943.4.1~ 1945.8.15) :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을 전시체제로 만들어, 교육에 관한 비상조치

령(1943.10.13), 학병제(1943.10.21)가 실시되었고, 중학교(4년)와 실업학교(2~4)의 수업연한이 1년씩 줄어들었다. (그림1. 참조)

우리나라 근대 수의학교육이 실시된 것은 1908년4월25일 수원농림학교에 “수의”의 인가를 받아 수의속성과(20명)가 설립된 것이 처음이다. 1908년 수원농림학교의 본과과정은 수업연한이 2년제이었는데(1909년에 3년으로 변경) 수업연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속성과라 하였다. 이 과정(수의속성과)은 1회의 졸업생만 배출하고 1909년 4월10일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실무와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목적으로 고등교육보다는 중등교육의 실업학교 특히 농업 교육 강화를 위해 1910년에 대구, 광주, 춘천, 진주, 정읍, 함흥, 전주, 북청, 예산 등지의 모두 10개 공립농업학교를 설치하였고 1911년에는 사리원, 연변, 의주, 청주, 안주의 5개교가 추가로 개교하였고, 1918년에는 경성농림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 당시 설립된 수원농림학교의 입학자격이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에서 만 15세에서 25세 이하의 사람으로 신체 건강하고, 품행방정하며, 가사에 무관한 사람”으로 보아 수원농림학교 역시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중등교육과정임을 알 수 있다. 수원농림학교가 1918년 3월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고등교육과정의 학교로 변신함을 볼 수 있는데 “1921년 입학생 중에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학과 시험이 면제되어 신체검사와 구두시험만으로 허가”라는 점과 1918년 4월15일 10시에 수원농림전문학교 개교식에 하세가와 총독과 조선농회 회두 이 완용이 참석한 기록으로 보아 그 중요성이 짐작된다. 수원농림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수원지역의 실업교육을 위해 1936년7월1일 수원공립농업학교가 설치되었고 이 학교는 수원공립농림학교(1945.12.21)로 개칭되었다가 수원농림고등학교를 거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1991.3.2)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수원 장안 영화동에 위치하고 있다.

해방 후부터 수의사국가고사법(수의사법)이 제정되어 제 1회 수의사국가고사가 실시된 1957년 이전에 졸업한 사람은 졸업 후 수의사면허를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발급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방 전 수의축산과 졸업생들도 수의사면허를 신청하면 조선(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면허증을 발급하였다. 다만 해방 후부터 정규과정(수의과대학)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시험제도를 두었다. 한편 일본에 건너가 공부하고 해방이 될 때 까지 수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조선 사람이 382명(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가장 많은 해는 1938년으로 100명)에 이른다. 이 숫자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조선총독부수원농림전문 12명, 新京(만주)축산수의대학 10명과 제국대학(동경, 북해도)4명, 전문학교 13명을 제외한 343명은 일본에서 농림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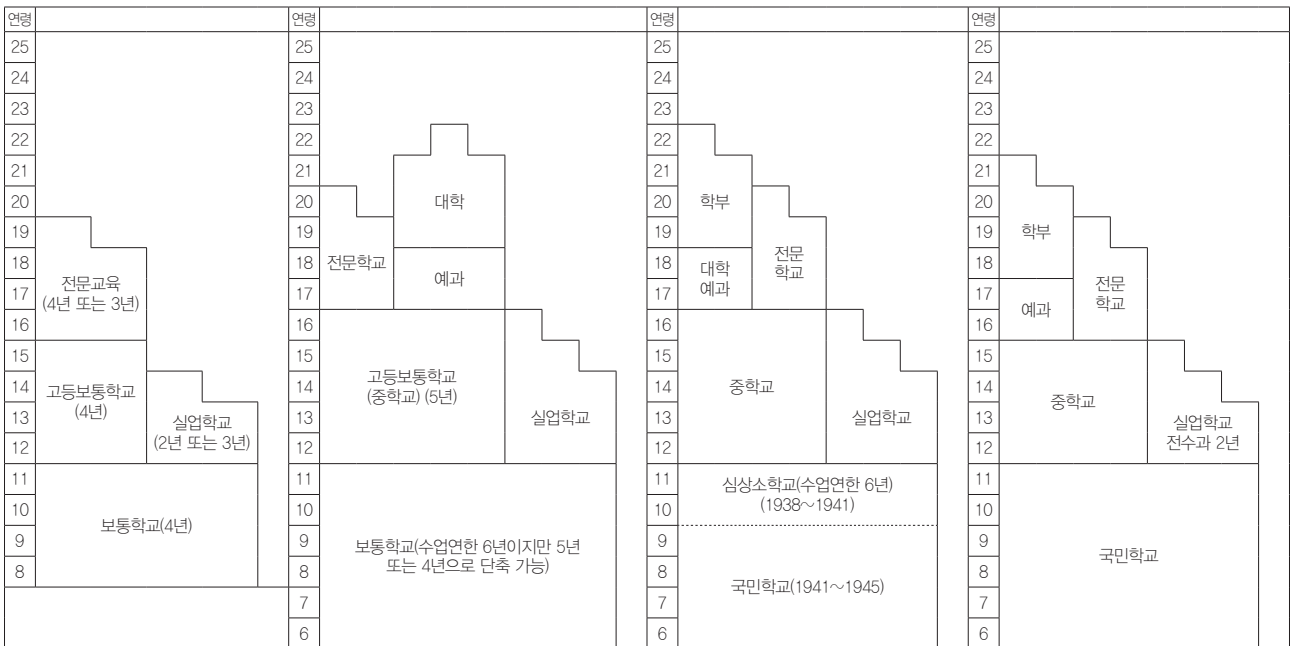


그림 1.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4년을 원칙으로 하였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수업연한이 1년이 더 긴 분야는 의학교육이다. 2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심상소학교, 중학교는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였다. 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심상소학교는 1941년 4월 1일부터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현재의 초등학교) 태평양전쟁(1941~1945)으로 수업연한은 줄었고(중학교 1년) 1943년10월21일부터 학병제가 실시되었다. 모든 그림은 '한국교육100년사(교육신문사)'에서 발췌하여 간략화 한 것임

그리하여 해방직후 국내에서 활동한 일본의 제국대학(수의학과) 출신은 김용필, 김종희(부산가축위생시험소) 두 분으로, 서울대학교 수의학부가 탄생할 무렵 교수는 이근태(축산학, 초대수의학부장, 그 당시 축산학계의 유일한 학사)와 김용필(교무과장, 수의조직, 병리학) 두 분 뿐이었고 얼마 후 오순섭(47.10.1부임, 수의해부학, 초대 수의과대학 학장)이 발령을 받아 학생과장을 겸하였다하니 지방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수의학과와 조선인이 1명 정도의 교유(정교사)가 있었던 농림학교의 인재난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 교육통계분석자료”를 보면 전국초중고교 교사의 10명 중 3사람(31.8%)이 석사 이상의 소유자이고,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4사람이 석사 이상이라는 소식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2. 미군정기의 수의학교육

미군정기라 함은 일본으로부터 해방(1945.8.15)된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까지의 기간(3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미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육은 미군정 학무국이 총괄하였는데 자문기구는 조선교육위원회(1945.9.~1946.5)와 조선교육심의회(1945.11.~ 1946.3.)의 두 개가 있었다. 조선교육위원회는 10인(김성달, 김성수, 김활란, 백낙준, 유억겸, 윤일선, 정인보, 조백현, 최규동, 현상운)으로 구성된 군정청 학무국 최초의 자문기구로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과 중요 문제를 심의 결정하는 학무 당국의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정리하면 ① 언제 학교 수업을 재개할 것인가? (휴교 상태에 있던 학교의 재개 시기) ② 일본인 직원의 해고(일본인 교사나 친일파 교사의 해고 여부) ③ 학무국의 요원과 기구문제(학무국 요원으로 누구를 추천하며 어떻게 학무국의 기구를 구성할 것인가?) ④ 교육행정관의 임명(각급 학교 교장의 임명) ⑤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제(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 이었다. 조선교육위원회와 더불어 미군정기 한국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하나의 조직은 조선교육심의회(1945.11.~1946.3.)이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이 1945년 11월23일 한인교육계와 학계의 지도자 100여명(교육제도, 교육행정,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 의학교육에 이르는 10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눔)으로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학무국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의제를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체 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결의를 하였다.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내용 등 한국 교육 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하여 이를 학무국

에 건의하였는데 대개 수정 없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군정 초기 대학교육에 관한 조치들은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에서 심의 건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대학은 4년 혹은 그 이상의 수업연한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고급중학교 혹은 사범학교(교대의 전신)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를 수용한다. ② 대학교(university)는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가진 대학을 말한다. ③ 대학(college)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된 학교를 말한다. ④ 남녀공학은 대학 선택에 맡긴다. ⑤ 1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학원 과정은 담당할 교수진이 확보된 경우에 설립할 수 있다. ⑥ 대학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의 3가지 학위를 수여한다. 이들에서 ②③항은 엄격히 지켜져 왔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1996) 후 ③항의 개념은 소멸되었다.

교육에 관한 미군정 최초의 조치는 9월17일 내려진 군정장관의 일반 명령 제 4호로 ‘초등학교는 1945년9월24일(월)부터 재개한다’ 이었다. 이것이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후에도 신학기초를 9월이 되도록 한 여건이 되었으나 1950년 2월 15일 국회에서 학년 초를 9월로 하는 정부안을 부결하고 4월로 할 것을 가결하였다. 그래서 한 학기를 당길 수 없어 1950년에는 6월을 학년 초로 삼았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950년 입학생은 6월10일에 입학식을 가졌다. 이들은 입학식 후 2주가 될 무렵 6.25사변을 맞게 되었다. 또한 전시 중 피난 임시 수도이었던 부산에서 있는 서울대학교 제7회 졸업식(52.2.18)에서 “전시민의 촉망과 기대리에 부산시내 영선초등학교 강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52.3.3 대학신문)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짜의 대학신문에서 “신입생 입학식은 오는 4월13일 동대신동 부산제일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거행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재학생 학기말 시험은 3월31일, 납입금납부기간은 4월5일, 수강신청기간은 4월11일이며 개강은 4월13일로 되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1953년 입학식은 4월13일 동대신동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을 미루어 보아 그때가 전시 중임을 감안하면 52년부터 자연스럽게 4월 신학기제로 정착된 듯하다. 이렇게 4월 신학기제가 정착되어 지속되어 왔으나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1962년부터는 3월1일로 변경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52년 4월1일 실질적인 학기를 시작한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는 9월 학기를 바로 4월 학기로 변경하여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출발이 52년 이후인 대학은 4월 학기제로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교육방침은 식민지교육에 이어 전시체제교육으로 이어졌지만 미군정의 교육은 민주교육으로 방향을 전

환하였기에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한
민국 정부 수립 후 지방에서 국립대학의 설립 움직임이 있었
으나 곧 이은 6.25동란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전시하 교육특
별요강’에 따라 여러 대학이 통합 운영하는 전시연합대학이
부산을 필두로 대구, 광주, 대전, 전주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전시연합대학설립의 영향으로 1952년부터 경북대학교, 전남
대학교, 전북대학교에 이어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충남대
학교,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1955
년에는 도립 제주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1952년부터
1955년에 이르는 기간에 6개의 지방 국립대학이 설립되
었다. 진주, 춘천에서는 한 발 늦게 도립대학을 거쳐 국립으
로 발전하였다. 국립대학교로 가는 과정에 농업대학이 근간
을 이룬 것은 당시의 기반산업이 농업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농대는 부지(부동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해당 국립대
학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은 전쟁 중 학생들이 피난지역에서 강의를 들
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1.4 후퇴 후인 1951년 2월 10일 ‘전
시특별조치법’을 문교부령으로 만들어 공포하였다. 부산을
필두로 광주, 대구, 대전, 전주 등이며 부산전시연합에 참가
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국학대, 한국대, 국민대, 신흥대,
단국대, 세브란스의대, 숙명여대, 서울여자의대 등 10개교였
고 학생수는 4,268명이었다. 대전377명, 전주1,283명, 광주
527명으로 전체 학생수는 6,455명, 교수는 444명이었으며,
전시연합대학은 시작한지 1년4개월후인 1952년5월31일자
로 해체되었다. 수의대의 전시연합대학은 전남대학교와 전북
대학교 수의학과 1학년 이외에는 서울대 수의학부 학생만 해
당되었으므로 다른 지역 학생 참여없이 부산 송도의 혈청소
(공식 명칭은 ‘수역혈청제제소’이며,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의
전신으로 해방후에는 가축위생연구소라 불리었다)에서 진행
되었다. 송도의 혈청소는 우역, 우폐역, 탄저 등의 혈청을 생
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규모는 부지면적 22만여평, 건물
연면적은 1300여평으로 대단히 큰 규모였다. 수의영역의 유
일한 연구소이어서 대학에서의 교수 구하기가 어려운 해방직
후 서울대학교 수의학부 학생들이 방문하여 집중강의를 받은
관계였으니 전시연합대학이 부산에 개설되었을 때 서울대학
교 수의학부가 혈청소 협조를 얻기 용이하였을 것이다.

미군정기 학제의 특징은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지
만 처음으로 유치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중등학교는 4년제 중
학교를 1949년 12월31일자 (법률 제86호)로 제정한 교육법
상의 기간 학제는 6-4-2-4제로 채택하였으나 시행도 하기
전에 1950년 3월10일 (법률 제118호) 교육법을 수정하였다

가 1951년 3월 다시 개정하여 6-3-3-4제의 학제가 정착되
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졸업생이
배출된 시기는 51년(공립), 52년(사립)으로 이 시기에 새로운
교육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49년
도 대학에 입학한 분은 중등교육을 5년 수학하였기에 대학에
입학하여 1년 예과수업을 받고 수의학부(수의과대학) 4년을
다니는 즉 5년 동안 수의과대학을 다닌 경우도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학교를 다니고 수학연한을 맞추어 대학에 진
학한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수의축산학과’로 표기하
였지만 농림학교에서는 ‘수의축산과’로 표기하였고 미군정기
에는 수의와 축산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수의축산학과에서 수
의를 분리하여 수의학부로 하고 농과대학 수의학부이지만 의
과대학이 있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으로 이전하게 하여 별도
운영되게 하였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1950년대에 이르
러서도 수의와 축산의 혼재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은 당시의
상황이 가축의 개량과 증식보다는 질병의 방제를 비롯한 가
축의 위생 부분이 급선무이었던 관계로 수의와 축산이 분리
되지 않았으며,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의를 비
롯한 축산분야의 업무를 관장하였던 닻(수의축산학과 졸업생
의 많은 사람이 축산영역에 종사)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수
의축산학과의 교과과정을 보면 수의영역의 과목이 월등히 많
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의 축산은 생명공학으로 가고
있고 수의학은 다양한 직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수의학교
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수의축산학과, 대학에 따라서는
수의학과와 축산학과의 명칭 혼재, 5.16에 의한 강제(대
학정비령) 정원축소 혹은 학과폐지, 폐지되었던 학과의 부활,
70년대의 통폐합바람으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수의학과
폐지, 다시 폐지되었던 학과의 부활과 새로운 수의학과
의 신설, 수의과대학(10개)으로 승격, 수업연한 연장(예과2+본
과4)으로 발전하기까지 다른 학문분야에서 볼 수 없는 질곡
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만하여도 내자(국비)사
정이 여의치 않아 차관으로 실험실습기구를 도입하여야 했으
므로 차관 배정을 받지 못한 수의과대학들은 교수연구에 필
요한 기구는 물론 학생들의 실험실습 기구조차 구입하기 어
려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괄목하여 대학의 부속동물병원에 CT는 물론 MRI를 갖춘 대
학도 더러 있음을 볼 때 대학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 다음호에 계속 -